

## 내년 총선 60세 이상 유권자가 30세 이하보다 많아...사상 처음

10월 말 기준 6070세대 2030세대보다 17만 명 많아  
 통상 노년층은 보수정당 지지하지만 예단은 어려워  
 민주화 운동 이끌던 '86세대' 60대 진입하기 시작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30세 이하를 넘어설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로, 노년층 표심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31일 기준 60세 이상 유권자는 1390만여명으로, 18~39세(1373만여명)보다

17만여 명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4050세대(1660만여 명)가 37.5%로 가장 많고, 이어 6070 세대 31.4%, 2030세대 31.1% 순이다.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30세 이하 유권자 수를 앞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 30세 이하 유권자는 1424만여명으로, 60세 이상 1312만여명보다 112만여명 많았다.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청년층을 앞지르게 되면서 노년층 표심이 이번 선

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유권자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투표율이 높다. 노년층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정당 중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86세대(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가 60대에 접어들고 있어 이

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만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년층 표심을 사기 위한 노인친화적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4050세대에선 민주당이, 6070세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우위인 만큼 2030세대 표심이 승부를 결정 짓는 케이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변용일기자

### 전남 농어촌마을, 10곳 중 6곳은 종합병원 차로 30분 넘게 걸린다

호남통계청, 전남 농어촌마을 생활모습 기획자료 발표

전남 지역 농어촌마을 10곳 중 6곳은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자동차로 30분 이상을 가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농어촌마을 생활모습 기획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남지역 보건소(91.2%)와 보건진료소(85.5%)는 대부분 읍·면내 같은 지역에 있지만 종합병원은 94.6%의 마을이 읍·면 외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 61.1%나 됐다.

또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의원(35.5%)과 약국(30.4%)이 읍·면내 같은 지역에 없는 마을도 상당수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용실(88.1%)과 목욕탕(74.2%)은 대부분 같은 지역에 있는 반면 대형마트(68.6%)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많았으며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도 41.1%를 차지했다.

마을회관(99.6%), 어린이집(73.7%), 노인복지회관(67.2%) 등 복지시설은 대부분 같은 지역에 위치했지만, 상설영화관 등 문화시설은 대부분 마을과 다른 지역에 있었다. 영화 관람을 위해서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도 60.1%

를 차지했다. 교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마을은 같은 지역에 초등학교(97.4%), 유치원(95.2%), 중학교(78.0%)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63.5%의 마을이 다른 지역(읍·면 외)에 위치했다.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는 마을 20.1% 차지했다.

2020년 마을 주민이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 마을 수는 6242개(92.0%), 없는 마을 수는 543개(8.0%)였다.

인근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는 마을 수는 10년 전(2010년)에 비해 227개(7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2010년)에 비해 시외버스, 여객선, 기차 등 원거리 교통수단을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마을 수는 감소했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전남도에 이장이 임명돼 있는 행정단위 마을은 67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3만7563개)의 18.1%를 차지하며, 2010년(2010년)에 비해 135개(2.0%) 증가했다.

전남지역 마을은 군 지역에 81.2%, 시 지역에 18.8%가 분포돼 있으며 전국(55.2%)보다 군 지역에 마을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면기자



연탄 전달하는 스님들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정릉골에서 열린 '자비실천,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 광주시 “동물카페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관련 법률 개정...신고편 4년간 유예

광주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지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단 반려동물과 가축·앵무목·꿩과·거북목·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 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먹이주기·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장성군  
Jangseong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